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틀 試論

유지현 · 한명숙 · 박부진*
(상명여대 가정학과), (*명지대 교양학부)

텍스트는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 즉, 저자가 독자에게 의사소통하는 통보과정에서 통보단위로서 정보기능, 호소기능, 의무기능, 교제기능, 선언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사상이라든가 사회의 관습을 잘 묘사한 소설 텍스트는 구조적 본질이 언어단위들의 연속체라 할 수 있으므로 언어의 최소단위인 음소, 음운은 물론이고 의미체계를 지니고 있는 단어에 있어서도 다의적 기능과 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고정적 실체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설텍스트를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상징작용의 해석학적 맥락으로 상징의 의미를 분석할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인류학과 어문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의류학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상징의 의미분석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설 텍스트의 의미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Turner가 주장하는 “다의성” 또는 “모의성”이론과 그의 상징의 양극 현상중 “지배적 상징”이론을 기초로 하였으며, Whitehead의 “2중적 상징지표”를 의례상황에 적용시킨 정승모의 “의례상황에서의 상징 과정 틀” 그리고 언어학에 있어서 이성만의 “통보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소설 텍스트인 <혼불>에 나타난 의례복식에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틀> 참조

위의 분석틀에서와 같이 상징(S)에서 의미(M')로의 진행과정은 의례전문인이나 의례수행자의 행위를 보는 참여자들, 또는 연행텍스트에서의 연행관객(독자)에게서 나타나며 참여자 또는 독자는 의례전문인이나 연행자(저자)가 보여주는 상징에서 이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 들인다. 이 과정은 경험적이고 구체화된 상징에서 추상적 의미를 찾는 것이므로 추상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상징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상징에서 의미를 받아 들이는 과정과 반대되며 또 선행된다. 이 과정은 의례수행자와 연행자(저자)에게 해당되는 과정이며 여기서 참여자나 독자가 개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의례의 상징적 행위는 의례 전문인이나 의례 주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이 의미가 참여자 또는 관찰자에게 알려지는 또는 알리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어느 과정이 강화되는가에 따라 의미를 구체화 하려는 의례행위와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례행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연행 텍스트의 해석학적 맥락에서의 의미도 구조적이고 정체적인 의미(bedeutung)와 해석에 따라 역동적인 의미(sinn)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동적 의미인 sinn을 의미한다.

의례전문인이나 연행자(저자)는 참여자나 연행관객(독자)보다 상징의 의미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참여자나 연행관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신비적인 의미 세계를 전문적 지식(화용 능력)에 따라 상징화 한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의 각도에서 보면 동일한 상징에 대해 일반적 개념에 있어서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상징행위에 대한 규범적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송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관념들(ideals)중에는 수신자가 받아 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문화와 시대 그리고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치할 것이며, 만약 다른 문화와 시대 그리고 다른 사상을 가졌다면 반응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Miller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근본은 공유된 의미를 전제로 하지만 참여자 간에는 의미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상징은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grey area)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만약 행위자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행위의 근거를 규범적 가치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소설 텍스트 <혼불>에 나타난 통과의례복식중 인륜지 대사로 여기는 혼례의례와 죽음과 사후의례의 복식 및 복식행동의 예문을 의미 분석한 예이다.

(예1) 혼례복의 예

(예2) 상례복의 예

Charles Morris는 상징은 그것의 해석자에 의해서 산출된 sign이며, 그것은 비슷한 다른 sign을 위한 대체물로서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의미하는 바를 해석자가 상징화 할 수 있으므로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은 Turner의 “다의성”이론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의적인 상징 중에서 보다 지배적인 상황을 나타냄을 예증했으며, Whitehead의 2중적 상징지표인 저자의 의미(M)와 독자가 분석한 의미(M')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저자의 화용능력에 따른 소설 텍스트가 통보하는 상징은 독자의 화용능력(세상지식, 행위지식, 경험체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모든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적 의미분석 틀로서 적용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세심한 연구를 기대하면서 단지 시론으로써 그 의의를 가지려 한다.